아홉 가지 마음의 머무름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사람들의 마음이 외부세계로부터 받는 자극과 유혹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자극을 받거나 유혹을 당하면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다. 지관(止觀)의 수행은 이러한 동요를 막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원효는 자신의 신론소(해동소)에서 〈유가론〉의 말을 인용,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멈추는 아홉 가지의 예를 제시하였다.

①**내주(內住)** : 외부의 세계와 얽힌 객관대상 때문에 일어난 산란한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아들여 마음을 안으로 안정되게 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등주(等住)** : 처음에는 대상세계에 얽매인 마음이 거칠게 동요해서 평등하고 원만하게 머물 수가 없으나 차츰 그 대상세계에 대해 하나하나를 차별적으로 보는 생각을 없애 간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정화하는 방법들을 써서 거친 생각들을 억누르고 미세하게 하여 한곳으로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③**안주(安住)** : 만약 마음이 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평등해진다 하더라도 한 번 마음을 방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깥세계로 흩어지려는 기미가 있으면 다시 마음을 모아 안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다.

④**근주(近住)** : 마음을 안으로 집중시키되 바깥세계를 멀리하여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이 머문다 하는 뜻에서 근주라 한다.

九住, 평화로운 마음 상태
사마타 수행을 적극 권장

⑤**조순(調順)** : 여러 가지 모양(相)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데, 이를테면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 등 오근(五根)이 일으키는 번뇌와 탐(貪)·진(瞋)·치(痴) 등 해로운 생각과 남(男)·여(女) 등의 모양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은 선정을 방해하는 화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고, 공연히 마음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조절하여 순하게 하므로 조순(調順)이라 한다.

⑥**적정(寂靜)** :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과 시기, 질투, 원한, 해침 등 모든 악(惡)을 찾아다니는 번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이러할 때 악을 찾아다니는 번뇌를 퇴치하려는 힘으로 마음이 흘러 흩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정이라 한다.

⑦**최극정(最極靜)** : 조순이나 적정의 경우가 나타나지만 생각이 잘못되면 다시 동요가 생기고 그것을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다시 그것을 계기로 애써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극복하고 지극히 고요한 마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를 최극정이라고 한다.

⑧**전주일취(專住一趣)** :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노력함으로써 조금도 결함이 없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삼매(三昧)가 생기는 것을 일컬어 오로지 한 가지에 머문다는 뜻에서 전주일취라 한다.

⑨**등지(等持)** : 한없이 여러 차례로 닦고 또 닦아 그렇게 닦은 것이 원인이 되고 계기가 되어 이제는 별도로 방편을 써서 노력함이 없어도 자유로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쓸 수가 있게 되므로 이를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증지라 한다.

이상의 구주(九住)는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가 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외부의 경계를 의식하면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욕구에 따라 중생의 마음은 흔들리고 분열된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고요함이다. 이를 위해 기신론에서는 사마타의 수행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 없이 사물에 대한 정확하고 투철한 관찰은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사마타(止)에 의한 관찰법 비파사나(毘鉢舍那 :觀)를 네 가지로 구종심주에 이어 설명하고 있다. 능정사택(能正思擇)과 최극사택(最極思擇), 주변심사(周遍尋思), 주변사찰(周遍伺察)의 4가지인데 능정사택이란 곧 올바른 사유분별로 모든 것을 정확히 보는 것을 말하고 최극사택이란 대상세계를 보고 지극히 깊이 사유분별하여 그 본성인 진여를 가려내는 것이다. 주변심사는 지혜로운 눈으로 외적인 양상을 남김없이 관찰하는 것이고 주변사찰은 객관적 사물에 대하여 그것이 지닌 의미를 남김없이 관찰해 내는 것을 말한다.

걸인은 해탈을 위한 '일대사 인연'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㉚ 보살이 기다리는 것들

勝解脫品第五 (승해탈품제5)

菩薩思惟。常所愛勝解脫者來覺悟我。彼來者不為財寶。為欲成就我大事故來。菩薩或為人王。修諸功德者來而白王言。有乞者來。王ǽ 念言。此言乞者乃是勝解脫來。我今得之。王自念言。我今不為貪著王位。為欲利益一切眾生。不應空居王位。應修施果滿足°而彼使者乃是覺悟我者。凡為乞者甚難為顏，心懷 恥言色變異。菩薩ǽ知其意而安慰言。若有所須隨意而求。乞者— 得財物心大歡喜。施者受者二俱歡喜如涅槃樂。(보살사유。상소애승해탈자래각오아。피래자불위재보。위욕성취아대사고래。보살혹위인왕。수제공덕자래이백왕언。유걸자래。왕즉념언。차언걸자내시승해탈래。아금득지。왕자념언。아금불위탐착왕위。위욕이익일체중생。불응공거왕위。응수시과만족。이피사자내시각오아자。범위걸자심난위안。심회참치언색변이。보살즉지기의이안위언。약유소수수의이구。걸자기득재물심대환희。시자수자이구환희여열반락。)

번역

수승한 해탈에 대한 품 제5

보살은 "늘 사랑할 바, 수승하게 해탈한 이가 와서 나를 깨우쳐주리라. 저 오는 사람은 재물과 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큰일을 성취시키고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이 혹, 사람들의 왕이면, 여러 공덕을 닦는 이가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왔습니다"하면, 왕이 즉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구걸하는 사람은 수승한 해탈이 왔다는 것이니 내가 지금 얻으리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나는 지금부터 왕위에 탐착하지 않으리니, 일체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자 하노라. 헛되이 왕위에 머무르지 않으리니, 응당 보시와 과보를 만족하게 닦으리라. 저 심부름 하는 이도 나를 깨닫게 하는 이로다"라고 합니다. 무릇 구걸하는 이가 심히 어려워하는 낯빛과, 마음에 부끄러움을 품고 말이나 얼굴색이 변하면, 보살은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평안히 위로하여 말하기를, "만약 바라는 바가 있으면 뜻대로 구하세요" 합니다.

구걸하는 이가 기왕에 재물을 얻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보시하는 이와 받는 이가 둘이서 같이 기뻐하니 열반의 즐거움과 같습니다.

해설

열 반 (涅 槃)은 산 스 크 리 트 어 'nirvana(니르와나)' 의 음사이다. '번뇌의 불을 끈 상태' 를 의미하며, 해탈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또는 〈승만경〉에서는 해탈로부터 열반에 이른다고 한다.

보살은 열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모든 번뇌의 불을 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곧 해탈이며, 열반의 즐거움 얻는 것을 의미하는 가르침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보살은 기다린다. 그 수승하게 해탈한 이가 자신에게로 와서 깨우쳐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해탈의 길로 인도할 이, 그 일대사 인연이 바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제바라보살은 힘주어 말한다.

그리하여 구걸하는 이가 구걸하는 것을 얻어 즐거워하면, 비로소 보살도 즐거워한다. 보살은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얻은 것처럼 구걸하는 이를 얼싸안고 기뻐한다. 그 기쁨이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음의 종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에는 120여개의 선원(禪院)이 있고 결제 때마다 2300여 명의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향해 정진(精進)하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간화선(看話禪)이라며 간절심으로 화두정진(話頭精進) 하고 있다. 그런데도 깨달음을 이룬 자의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고 30, 40년을 한결같이 선원에서 수행하는 구참 납자들은 늘고 있다.

닭이 1천 마리이면 그 중에 봉(鳳)이 한 마리라는 옛말은 한국 불교계에선 전설로 박제된 지 오래이다. 깨달음을 이룬 뒤 숨어사는 선지식이 있을는지는 모를 일이나 그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선지식(善知識)은 아닌 것이다.

깨달음을 드러낼 일도 아니지만 숨길 일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은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선지식들의 행위에 대해서다. 명예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과 조직과 재물관리에 속물근성을 벗어 버리지 못한, 해탈자로서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집착을 벗어버린 초연한 모습은 커녕 세력화, 집단화를 지향하며 생활의 고급화에 안주(安住)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화선 제일주의로 굳어진 수행풍토에서 왜 20년, 30년, 40년의 외길수행 길에서 깨달음은 더디고 햇수의 연륜(年輪)만 길어지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타성과 인습에 젖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간절심 부족에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참 스승이 없음이요 선문답(禪問答)을 통한 절차탁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선원의 화려함, 배부름에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는 불(佛)·법(法)·승(僧)이다. 이는 자유(佛)와 평등(法) 평화(僧)를 의미한다. 꾸밈과 조작, 집착을 벗어버린 자연인의 삶이 자유인의 세계다.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헐떡이지 않으며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 쓴 소리를 해야겠다. 불교는 열려있는 종교이다. 승가(僧伽)는 화합과 평화를 의미한다. 불교신앙의 생명력은 자비실천에 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찰은 열려 있으나 스님들의 의식구조는 닫혀있고 막혀있다. 그 대표적 문제점은 큰 사찰일수록 문중(門中)중심의 세속화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찰 출신의 승려가 아니면 주지도, 승가대학장도 율원의 율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선원의 선원장에 조실과 방장에 이르기까지 당해 사찰 문중이 아니면 언감생심 접근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이니 그 폐쇄성에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는 슬프디 슬픈 일이다.

어느 대학이 있다고 치자. 그 대학 출신이 아니면 학과장도 교수도 총장도 될 수 없다면 그런 대학의 장래는 먹구름으로 뒤덮여 두 동강이 날 것이 뻔하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웃기는 대학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웃기는 일이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덕목으로 삼는 열린 불교의 대표적 종단에서 버젓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둘레를 넓히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다.

깨달음 수행, 관습적 안일함서 벗어나야
움직이는 수행으로 '간절심' 을 모으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신본주의(神本主義)적인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아니라 심본주의(心本主義)적 자력신앙(自力信仰)이 중심이 되는 종교이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과 〈법화경〉의 사람이 곧 부처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 은 자비실천을 으뜸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열린 불교처럼 승가의 정신세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기본 자세에서 관습적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안거의 연륜에서 움직이는 수행으로 간절심을 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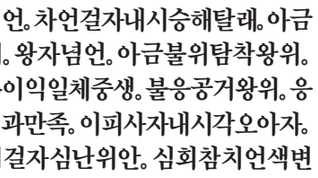
하여, 선지식이라면 사찰 키움과 허명(虛名), 허세(虛勢)에서 벗어나 참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돼야한다. 명예와 재색(財色) 주변에 서성이며 제도권에 안주(安住)하는 이름뿐인 선지식들은 수행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턱걸이를 즐기는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깨달음은 해탈(解脫)을 의미하며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이룬,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